

베트남 생명보험시장 최근 실적 동향¹⁾

□ 국가 개요 및 경제 동향

- 베트남은 현재 경제규모* 세계 37위, 동남아국가 6위에 머물러 있으나 약 1억명**이 넘는 인구 규모 및 빠른 경제성장*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음

* 2022년 명목 GDP 4,138달러, 1인당 GDP 4,163달러 (출처: KOTRA)

** 2023년 4월 기준 1억 480만명

-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은 +8%를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의 성장률 수준(평균 6~7%대)을 거의 회복함
- 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, 2028년 베트남의 명목 GDP는 2022년 대비 약 80% 증가한 7,260억달러로 커지며 세계 27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
- 또한, 2023~2028년 베트남의 실질 GDP성장률은 연평균 6.6%로 세계 9위, 아시아 2위 수준을 전망
- 또한 베트남 경제는 최근 농수산업 등 1차 산업에서 제조업/공업 등 2차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*
- * 산업별 GDP 증가율 : 농수산업 +3.4%, 공업/건설업 +7.8%, 서비스업 +10.0%
-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견조했던 수출입은 2022년에도 호조를 보이며 수출 +10.5% 성장, 수입 +7.8% 성장함
- 보험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꾸준히 두자리수를 기록

1) 닛세이키초연구소 「2022년도 베트남 생명보험시장」 및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「금융정보 Country Brief」, 보험연구원, 코트라, 외교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

□ 베트남 보험시장 변천 및 개괄적 현황

- 베트남 보험시장은 오랫동안(1976~1993) 국영보험사*의 독점 체제가 유지되다가 1994년 보험시장 개혁으로 민영 보험사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됨

* Bao Viet Holdings,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함

- 1996년 외국계 보험사와 베트남 보험사의 합작회사 설립 허용
1999년 외국계 보험사의 100% 자회사 설립 허용 등 베트남 정부의 규제 완화로 외국 자본*의 유입이 본격화됨

* 1999년 푸르덴셜과 Manulife의 베트남 보험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본격화

- 사회주의 국가 중 비교적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, 1억명을 넘는 인구, 생산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약 70%에 달하는 인구 구조로 인해 외국 자본의 베트남 진출이 활성화
- 베트남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3%, 27%로 생명보험 중심의 시장 (2022년도 수입보험료 기준)
 - 전통적으로 손해보험 시장이 중심이었으나 2015년 이후 생명보험 성장이 손해보험보다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생명보험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
- 생명보험산업은 외국계 보험회사*와 저축·투자형 보험 중심, 손해보험산업은 베트남 국내사와 건강·자동차보험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임

* 전체 생보사 19개사 중 18개사가 외국계 (국내사는 국영 Bao Viet Life), 한국은 8개 보험사가 진출하여 현지법인/지점/사무소 등을 설립함

□ 2022년 베트남 생명보험시장 실적²⁾

- **[시장규모]** 2022년 베트남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78조 3,270억 동(한화 약 9.7조원)으로 전년 대비 11.9% 성장함
 - 수입보험료는 2018년까지 매년 30%대로 증가하다가 2019년에 100조 동을 넘어선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까지 20%대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음

[표1] 베트남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(단위: 십억 VND)

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연평균 성장률
66,115	86,176	106,819	129,291	159,340	178,327	22.0%

[그림1] 베트남 생명보험료 수입보험료 추이 (2013~20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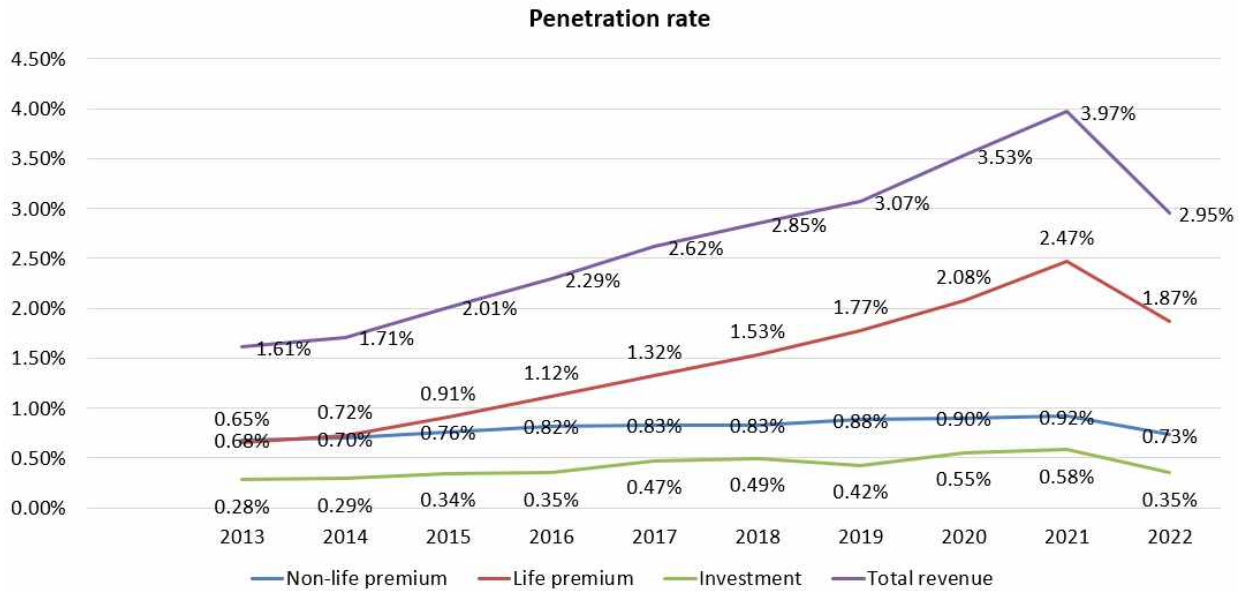


* 출처: 베트남 재무성 보험감독국 「Vietnam Insurance Market」

2) 베트남 재무성 보험감독국 「The Annual Report of Vietnam Insurance Market 2022」

- **[보험침투율]** 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보험침투율은 전체 2.95%, 생명보험 1.87%로, GDP 성장률보다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작아 전년(2.47%) 대비 감소함

[그림2] 베트남 보험침투율 추이 (2013~2022)



* 출처: 베트남 재무성 보험감독국 「Vietnam Insurance Market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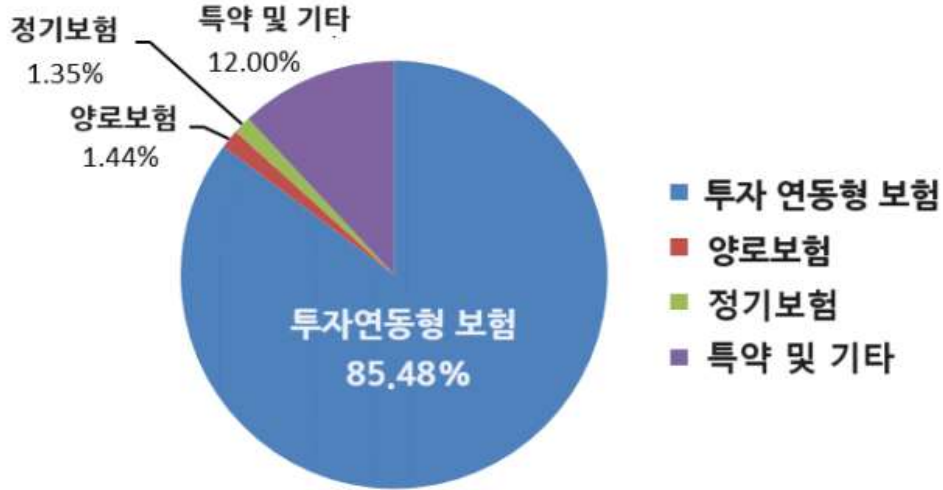
- **[신계약]** 2022년 생명보험시장은 신계약 건수* 감소(-4%)에도 평균 보장금액이 늘어나(+16%)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**

* 2022년 신계약건수 3,424,000건

** 2022년 신계약 수입보험료 전년 대비 +2.1%

- **[상품별]** 투자연동형(변액/유니버설) 보험이 85.5%, 보장성 보험인 정기보험이 1.4%로 대부분 저축성 보험
 - 보장금액 기준으로 봐도 투자연동형 보험 비중은 92.4%로 대부분을 차지함 (정기보험 5.3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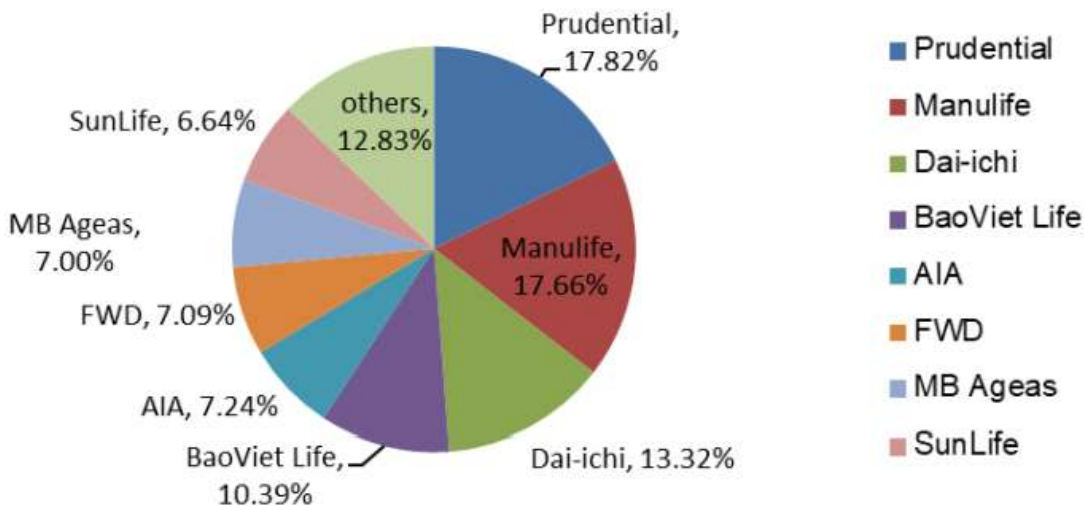
[그림3] 2022년도 신계약 상품별 비중 (수입보험료 기준)



* 출처: 닛세이기초연구소 「2022년도 베트남 생명보험시장」 (2024.01.23.)

- **[회사별]** 2022년 신계약 기준 보험사 Top5는 푸르덴셜, Manulife, 다이이치, Bao Viet, AIA [그림4]
- 2018년~2021년 1위를 유지해온 Manulife의 M/S가 4.6% 하락하여 3.8%의 M/S 상승을 기록한 푸르덴셜에 1위 자리를 내줌

[그림4] 회사별 신계약 점유율



* 출처: 닛세이기초연구소 「2022년도 베트남 생명보험시장」 (2024.01.23.)

□ 판매채널 동향

- 베트남 보험 판매채널로는 설계사, 법인대리점, 브로커, 방카슈랑스 등이 있는데 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설계사가 대부분(77%)을 차지하고 있음
- 최근에는 방카슈랑스 규제완화* 및 보험사와 은행 간 업무제휴 증가**로 방카슈랑스 채널이 활성화되고 있음
 - 다만, 과도한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 및 해지율 급증,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
- * 은행과 보험사 간 모집대리 계약 체결 시 보험료 징수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온라인을 통한 방카슈랑스 영업을 허용
- ** 2020 Manulife는 VietinBank와 16년간 방카슈랑스 독점 제휴를 체결
FWD Vietnam Life, Vietcombank와 15년간 방카슈랑스 제공 제휴 계약을 체결
- 2020년 보험 컨설팅/상담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등 보험 판매에 관한 법규제 정비가 이루어짐
- Agent(설계사) 규모는 2022년 기준 개인 64.5만명, 법인소속 27.1만명으로 총 91.7만명 규모이며, 개인설계사는 증가추세인 반면 법인대리점/대리점 소속 설계사수는 감소 추세 [표2]

[표2] 판매채널별 현황

Insurers	Individual agents	Institutional agents		Total individual agents
		Number	Individuals of agents	
Life	645.764	585	271.358	917.122
Non-life	127.501	2.704	51.781	179.282
Total	773.265	3.289	323.139	1.096.404